

2025년 11월 4일

외환파생상품영업부

◆ Hana Cross Currency Forecast Letter

◆ 최근 엔화 약세 배경 점검 및 향후 전망

I. 최근 엔화 환율 추이

- (달러/엔 동향) 다카이치 총리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BOJ 정책금리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확산. 이에 엔화는 가파른 약세 보이며 지난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
 - 하반기 들어, 미-일 무역협상 합의와 연준 추가 금리인하 기대감에도 이시바 퇴진설 등 대내 정치적 혼란 속에 140엔 중후반대에서 등락. 이후, 완화적 통화정책 지향하는 다카이치 일 자민당 총재가 새로운 총리로 당선된 영향으로 약세 폭 확대되며 154엔선까지 상승

II. 엔화 영향 주요 요인 점검

- (경제 상황) '25.2분기 일본 GDP성장률은 내수 회복세에 힘입어 전분기대비 0.5%로 개선됨. 향후 미 관세정책 영향으로 수출이 다소 둔화될 가능성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통화 정책) 일본은행(BOJ)은 10월 회의에서 금리동결을 결정했으며, 추가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임. 물가 변동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한 가운데 금융완화를 중시하는 다카이치 내각 하에서 BOJ 금리인상 시점은 예상보다 미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림
- (정부 정책) 다카이치 총리는 고물가 완화와 성장 산업 투자, 국가 안보 강화를 목적으로 적극 재정을 추구할 것으로 예상. 이에 경기 부양 기대감은 높아졌으나, 추가 지출 규모가 예상보다 커질 경우 국가 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
- (달러인덱스) 10월 FOMC 이후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인하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시장의 인하 기대가 후퇴. 이에 달러 강세 나타나면서 달러인덱스는 100선에 근접

III. 향후 엔화 방향성 점검

- 엔화는 다카이치 내각의 확장적 재정정책 추진과 BOJ 금리인상 지연 가능성 등에 약세 흐름 보일 전망. 연준의 금리인하 신중론 부각되며 글로벌 강달러 나타난 측면은 엔화와 원화의 약세 요인이거나, 한-미 관세협상 불확실성 완화로 원화 약세 압력이 다소 누그러짐에 따라 상대적인 원화 강세 예상. 따라서 단기적으로 엔/원 환율은 910~920원대로 하락하는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
- '26년 상반기까지 엔화 약세 압력이 우위 보이며 달러/엔 환율은 150엔 중반대 근접할 것으로 예상. 다만, 물가 상황에 따라 BOJ의 매파적 스탠스 강화될 경우 강세 전환할 가능성 열어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 또한, 일본 당국의 구두개입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실제 개입 등 대응 강화될 경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에 유의할 필요

분기별 엔화 전망

	'25.4Q ^(F)	'26.1Q ^(F)	'26.2Q ^(F)	'26.3Q ^(F)
달러/엔(단위: 엔)	153	154	155	153
엔/원(단위: 원)	925	910	920	910

*분기별 평균 환율

*(F)는 예상치